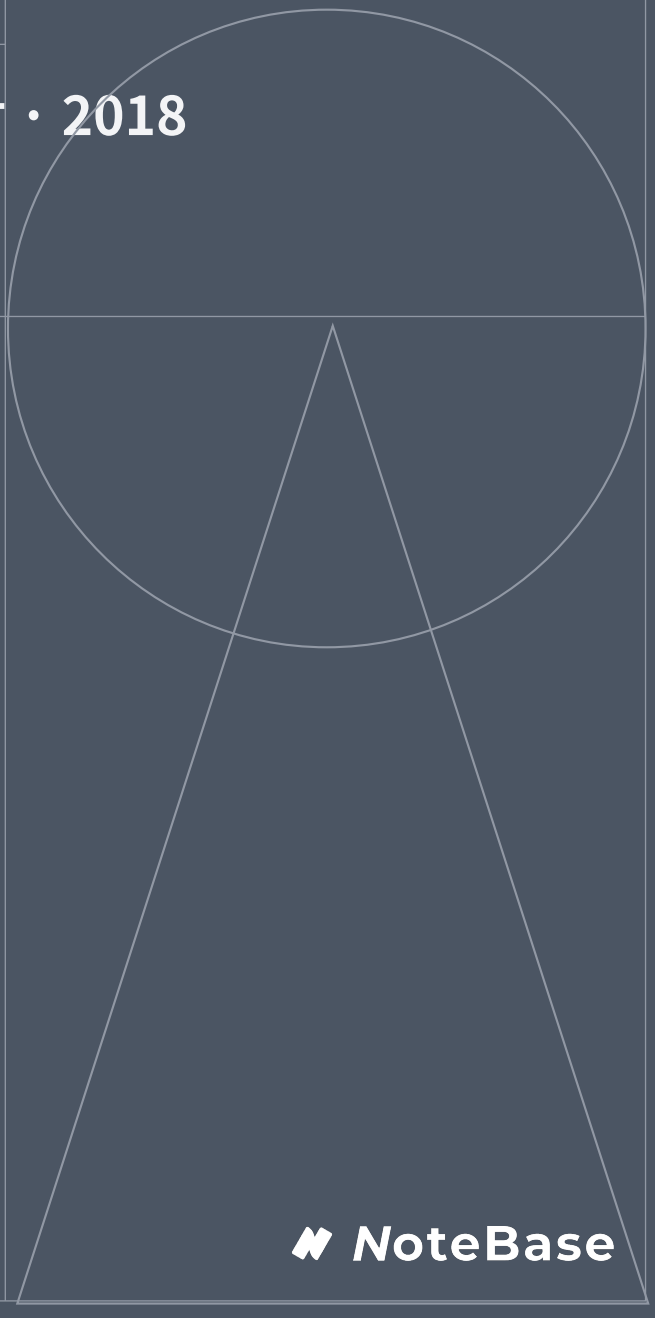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18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18

문 1. 경제통합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창출효과는 관세동맹으로 인해 회원국 간에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역내국 간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

② 무역전환효과는 관세동맹 성립 전에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상품이 관세동맹 성립 후에는 그 제품의 수입선이 역내 타 회원국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③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역내 및 역외국 모두에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④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보다는 정태적 효과를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제통합의 정태적 효과인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의미와 후생 방향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무역창출효과는 회원국 간 관세 철폐로 고비용 국내생산이 저비용 역내수입으로 대체되어 자원배분 효율과 후생이 개선되는 효과이다.
무역전환효과는 원래 더 효율적인 역외국 수입이 관세 때문에 덜 효율적인 역내국 수입으로 바뀌는 효과로,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경제통합의 정태적 효과는 자원배분과 후생의 즉시 변화를 뜻하고, 동태적 효과는 규모의 경제, 경쟁 촉진, 기술진보 같은 장기 변화를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무역창출효과를 정확히 설명한 선지이다. 회원국 간 관세가 철폐되면 역내국 사이의 거래가 새로 늘어나므로 역내국 간 무역이 창출된다.
2번 O: 무역전환효과를 정확히 설명한 선지이다. 관세동맹 성립 전에는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성립 후에는 관세 혜택이 있는 역내 회원국에서 수입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3번 X: 틀린 부분은 "역내 및 역외국 모두에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표현이다. 무역창출효과는 일반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과 후생 증가를 가져오지만, 무역전환효과는 더 효율적인 역외국 대신 덜 효율적인 역내국으로 수입선이 바뀌어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올바르게는 "무역창출효과는 후생 증가 요인이고, 무역전환효과는 후생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이다.
4번 O: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경제통합이 가져오는 즉각적인 자원배분 변화와 후생 변화를 설명하므로 동태적 효과보다 정태적 효과를 설명할 때 쓰이는 개념이다.

오답 포인트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모두 경제통합의 효과라는 이유만으로 둘 다 후생을 높인다고 묶어 버리면 3번에 걸린다. 두 개념은 발생 방향뿐 아니라 후생 효과의 부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제통합 문제가 나오면 먼저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를 구분한 다음, 수입선이 고비용 국내생산에서 저비용 역내국으로 바뀌면 무역창출효과로 본다. 반대로 더 효율적인 역외국에서 덜 효율적인 역내국으로 바뀌면 무역전환효과로 보고 후생 감소 가능성을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무역창출은 비싼 국내생산이 싼 역내수입으로 바뀌는 것이고, 무역전환은 싼 역외수입이 비싼 역내수입으로 바뀌는 것이다.

NoteBase

문 2. 비관세 무역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술규제는 제품의 표준이나 규격에 대한 인증·허가 등에 제한을 가하여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수출비용을 증가시키는 규제방법이다.

② 수출자율규제(VER)는 수출국이 자국의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수입국으로 하여금 당해 제품의 목표 수입량 또는 목표 시장점유율을 설정하고 그 수준까지 수입을 자율적으로 확대하게 하는 제도이다.

③ 수입할당제도(Import Quota)는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할 때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④ 수출신용제도는 국가가 수출상의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관세장벽의 유형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술규제는 표준, 규격, 인증, 검역 등의 요건으로 수입을 어렵게 하는 비관세장벽이다.
수출자율규제는 수출국이 수출물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수입할당제는 물량 자체에 상한을 두는 제도이고, 일정 물량까지 저율, 초과분에 고율을 적용하는 것은 관세할당제도이다.
수출신용제도는 수출대금 결제나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수출위험을 담보하는 것은 수출보험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기술규제는 제품의 표준, 규격, 인증, 허가 요건을 통해 외국 상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비관세장벽이다.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외국 수출업자의 비용을 높인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2번: X. 틀린 부분은 "수출증대를 목적"과 "수입을 자율적으로 확대"이다. 수출자율규제는 수출국이 수입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자국의 수출물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제시문은 자율적 수입확대제도를 뒤바꾼 설명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분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이다. 이것은 수입할당제가 아니라 관세할당제도이다. 수입할당제는 아예 수입가능 수량 자체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수출상의 위험을 담보함으로써"이다. 수출상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는 수출보험제도이다. 수출신용제도는 수출업자나 해외수입자에게 신용공여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입할당제와 관세할당제, 수출신용과 수출보험처럼 이름이 비슷한 제도를 서로 바꾸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2번도 수출자율규제를 자율적 수입확대와 반대로 섞어 놓아 방향을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관세정책수단 문제는 먼저 제한 대상이 물량인지, 기술요건인지, 금융지원인지, 위험보장인지를 구분한다. 그다음 "제한"인지 "확대"인지, "신용"인지 "보험"인지처럼 제도의 작동방향을 확인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기술규제는 표준·인증 장벽, VER은 수출제한, 수입할당은 물량제한, 위험담보는 수출보험이다.

NoteBase

문 3.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f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서 회원국에게 허용하는 보조금의 종류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낙후된 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ㄴ. 산업연구와 경쟁 전 개발활동을 위한 보조금
ㄷ. 특정성(specificity)이 없는 보조금
ㄹ. 새로운 환경법 · 규정에 기존 시설의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 허용보조금의 범주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비특정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연구개발·낙후지역 개발·환경규제 적응 지원을 함께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특정성(specificity)은 보조금이 특정 기업·산업·지역에 선택적으로 주어지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허용보조금은 협정상 비조치보조금으로 취급되는 보조금 범주이다.

핵심 구분

비특정 보조금은 협정 제2조 기준상 특정성이 없으므로 허용 범주에 들어간다.
특정성이 있더라도 연구개발 지원, 낙후지역 개발 지원, 새로운 환경법·규정에 기존 시설을 적응시키기 위한 지원은 협정 제8조상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만 고른 조합이므로 불완전하다. ㄱ의 낙후지역 개발 지원은 허용보조금이 맞지만, ㄴ의 산업연구·경쟁 전 개발활동 지원, ㄷ의 비특정 보조금, ㄹ의 환경규제 적응 지원도 모두 허용 범주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 ㄱ만 허용보조금이라는 조합
올바른 표현: ㄱ, ㄴ, ㄷ, ㄹ 모두 허용보조금이다.

② X
ㄱ, ㄴ만 포함하고 ㄷ, ㄹ을 빠뜨린 조합이다. ㄷ은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이므로 허용되고, ㄹ도 새로운 환경규제에 기존 시설을 맞추기 위한 지원으로 허용된다.
틀린 표현: ㄱ, ㄴ만 허용보조금이라는 조합
올바른 표현: ㄱ, ㄴ, ㄷ, ㄹ 모두 허용보조금이다.

③ X
ㄱ, ㄴ, ㄷ까지는 맞지만 ㄹ을 제외해서 틀린 조합이다. ㄹ은 새로운 환경법·규정에 기존 시설의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이므로 허용보조금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ㄹ은 허용보조금이 아니라는 판단
올바른 표현: ㄹ도 허용보조금에 포함된다.

④ O
ㄱ은 낙후된 지역 개발 지원, ㄴ은 산업연구와 경쟁 전 개발활동 지원, ㄷ은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ㄹ은 새로운 환경법·규정에 기존 시설을 적응시키기 위한 지원으로 모두 허용보조금의 범주에 들어간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비특정 보조금인 ㄷ을 놓치거나, 특정성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연구개발·낙후지역 개발·환경규제 적응 지원을 금지보조금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합선지에서는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답이 달라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금협정 문제는 먼저 특정성 유무를 보고, 다음으로 특정성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형 보조금인지 확인하면 된다. 연구개발, 낙후지역 개발, 환경규제 적응 지원이 보이면 허용보조금 후보로 바로 묶인다.

암기 포인트

허용보조금은 비특정 + 연구개발 + 낙후지역 + 환경적응의 네 묶음이다.

NoteBase

문 4. 산업내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내 무역은 요소부존도와 비교우위의 차이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② 산업내 무역은 무역상대국 간의 기술수준이 상이할수록 산업간 무역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③ 산업내 무역에서는 무역패턴을 예측하기 어렵다.

④ 산업내 무역은 제품차별화와 생산의 규모의 경제(economic of scale)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의 발생 조건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산업내 무역은 동일 산업의 차별화된 제품을 서로 교역하는 형태로, 국가 간 기술수준이나 요소부존도의 큰 차이보다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가 핵심 요인이다.
산업간 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와 요소부존도의 차이로 서로 다른 산업의 재화를 교역하는 형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산업내 무역은 전통적 비교우위 차이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국가 간 요소부존도가 비슷해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요소부존도와 비교우위 차이에 직접 의존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맞는 설명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기술수준이 상이할수록"이다.
- 산업내 무역은 보통 무역상대국의 소득수준, 기술수준, 요소부존도가 서로 비슷할수록 활발하다. 기술수준 차이가 클수록 산업내 무역보다 비교우위에 따른 산업간 무역이 나타나기 쉽다.
- 올바르게는 "산업내 무역은 무역상대국 간의 기술수준이 유사할수록 산업간 무역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이다.

③ O
- 산업내 무역은 동일 산업 안에서 차별화된 제품이 상호 교역되는 형태이므로, 전통적 비교우위 모형처럼 어느 나라가 무엇을 수출할지를 일의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④ O
- 산업내 무역의 대표적 설명은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이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다양한 품종 생산과 대량생산의 이익이 있으면 상호 교역이 발생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산업내 무역도 무역이므로 비교우위 차이가 클수록 더 잘 일어난다고 연결하면 ②에 끌리기 쉽다. 그러나 산업내 무역은 국가 간 유사성이 클수록 나타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역이론 문제에서 국가 간 차이가 클수록 비교우위 기반의 산업간 무역, 국가 간 수준이 비슷하고 제품차별화·규모의 경제가 강조되면 산업내 무역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산업내 무역은 유사성, 산업간 무역은 차이성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5. 리카도(D. Ricardo) 비교우위이론과 헥셔-올린(Heckscher-Ohlin)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두 이론 모두 불변생산비 하의 완전특화를 가정한다.
ㄴ. 두 이론 모두 국가 간 수요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ㄷ. 두 이론 모두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가정한다.
ㄹ. 리카도 이론은 생산기술의 상대적 차이를, 헥셔-올린 이론은 요소부존도의 상대적 차이를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리카도 비교우위론과 헥셔-올린 이론의 핵심 가정과 무역 발생 원인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리카도 비교우위론: 국가 간 생산기술 또는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키워드는 노동 단일요소, 기술격차, 비교우위이다.
헥셔-올린 이론: 국가 간 요소부존도의 상대적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키워드는 복수 생산요소, 요소부존도, 요소집약도이다.
두 이론 모두 자유무역의 기본 틀에서는 국가 간 선호가 같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생산요소 가정과 무역 원인은 서로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X
리카도 이론은 불변생산비 아래 완전특화가 나타나는 모형으로 설명되지만, 헥셔-올린 이론은 양국이 모두 두 재화를 함께 생산하는 불완전특화를 기본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틀린 표현은 "두 이론 모두"이다.
올바르게는 "리카도 이론은 불변생산비 하의 완전특화를 설명하지만, 헥셔-올린 이론은 일반적으로 불완전특화를 전제로 한다"이다.

ㄴ. O
두 이론 모두 국가 간 수요조건이 동일하다고 두고 공급 측 차이만으로 무역원인을 설명하는 전형적 가정을 둔다.
따라서 국가 간 수요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는 진술은 맞다.

ㄷ. X
리카도 이론은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보지만, 헥셔-올린 이론은 노동과 자본처럼 둘 이상의 생산요소를 전제로 한다.
틀린 표현은 "두 이론 모두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가정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리카도 이론은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가정하지만, 헥셔-올린 이론은 복수 생산요소를 가정한다"이다.

ㄹ. O
리카도 이론은 생산기술 또는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차이를 중시하고, 헥셔-올린 이론은 요소부존도의 상대적 차이를 중시한다. 두 이론의 무역 발생 원인을 정확히 대비한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ㄱ과 ㄷ은 모두 "두 이론 모두"라는 묶음 표현이 함정이다. 한 이론의 특징을 다른 이론에도 그대로 붙이면 오답이 된다. 특히 리카도의 노동 단일요소 가정과 헥셔-올린의 요소부존도 설명을 뒤섞으면 쉽게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리카도는 기술격차와 노동 단일요소, 헥셔-올린은 요소부존도와 복수 생산요소라는 기준으로 나눈다.
그다음 선지에 "두 이론 모두"가 나오면 각 이론에 공통되는 가정인지, 한쪽에만 해당하는 특징인지 따로 대조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리카도는 기술과 노동, 헥셔-올린은 요소부존도와 복수요소이다.

NoteBase

문 6. 해외직접투자(FDI)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은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서 낮은 비용으로 거래를 행할 수 있다면 기업이 시장기능을 대신하여 그 거래를 내부화하게 된다. (㉡)에 따르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특유의 우위(ownership-specific advantage), 내부화 특유의 우위(internalization-specific advantage), 입지 특유의 우위(location-specific advantage)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① ㉠: 독점적 우위이론, ㉡: 제품수명주기이론

② ㉠: 독점적 우위이론, ㉡: 절충이론

③ ㉠: 내부화이론, ㉡: 절충이론

④ ㉠: 내부화이론, ㉡: 제품수명주기이론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외직접투자 이론의 대표 키워드를 이론명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내부화이론: 시장의 불완전성과 거래비용 때문에 시장거래보다 기업 내부거래가 더 효율적이면 다국적기업이 거래를 내부화한다.
절충이론: 해외직접투자는 기업특유우위, 내부화우위, 입지우위를 함께 갖출 때 발생한다고 본다.
독점적 우위이론: 해외기업이 현지기업의 불리함을 이기려면 기술, 브랜드, 자본력 같은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제품수명주기이론: 신제품이 성숙·표준화되면서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을 독점적 우위이론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제시문은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생기는 거래비용을 피하려고 기업이 시장기능을 대신해 거래를 내부화한다고 설명하므로 내부화이론이다. ㉡을 제품수명주기이론으로 본 부분도 틀리다. ownership, internalization, location의 세 우위를 함께 보는 이론은 절충이론이다.
② X: ㉡을 절충이론으로 본 부분은 맞다. 그러나 ㉠을 독점적 우위이론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독점적 우위이론은 기업특유자산의 보유를 강조하고, 제시문처럼 거래비용 회피와 내부거래 전환을 전면에 두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 = 독점적 우위이론'이며 올바르게는 '㉠ = 내부화이론'이다.
③ O: ㉠은 내부화이론이고 ㉡은 절충이론이므로 두 연결이 모두 맞다. ㉠의 핵심은 거래비용과 내부화이고, ㉡의 핵심은 OLI 세 우위의 종합 판단이다.
④ X: ㉠을 내부화이론으로 본 부분은 맞다. 그러나 ㉡을 제품수명주기이론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제품의 혁신, 성숙, 표준화 단계에 따른 생산입지 이동을 설명한다. 틀린 표현은 '㉡ = 제품수명주기이론'이며 올바르게는 '㉡ = 절충이론'이다.

오답 포인트

㉠의 '시장의 불완전성', '거래비용 회피', '기업이 시장기능을 대신함'이라는 표현을 보면 내부화이론인데, 이를 기업특유우위 일반론인 독점적 우위이론과 섞기 쉽다. ㉡도 ownership, internalization, location이라는 OLI 세 요소가 보이면 바로 절충이론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해외이전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제품수명주기이론으로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거래비용 절감과 기업 내부거래 전환이 나오면 내부화이론으로 본다. O, L, I 세 우위를 함께 묶으면 절충이론으로 본다. 기업특유자산만 강조하면 독점적 우위이론이고, 제품의 성숙과 생산거점 해외이전이 나오면 제품수명주기이론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거래비용 회피는 내부화이론, OLI 세 글자는 절충이론이다.

NoteBase

문 7. 주식취득이나 공개인수와는 달리 단 한 주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자를 다수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M&A 방법은?

① Junk Bond
② Proxy Fight
③ Leveraged Buyout
④ Take Over Bid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주식의 직접 취득 없이 의결권 위임장 확보만으로 경영권을 노리는 proxy fight의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Proxy fight는 기존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 표 대결로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방식이다.
Take over bid는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고, leveraged buyout은 차입금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이며, junk bond는 고수익·고위험 채권으로 인수 자금 조달 수단에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X: Junk bond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수익·고위험 채권이다. 경영권 확보 방식 자체가 아니라 인수 자금 조달에 활용될 수 있는 금융수단이라는 점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정크본드는 M&A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이다.
② O: Proxy fight는 주식을 사지 않고도 주주들의 위임장을 모아 주주총회 의결권을 장악하는 방식이므로 발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Leveraged buyout은 차입금을 대규모로 활용해 대상기업의 지분이나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단 한 주도 소유하지 않고 의결권 위임자를 확보한다'는 설명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차입매수로 실제 지분 취득을 수반하는 인수 방식이다'이다.
④ X: Take over bid는 공개매수 또는 공개인수처럼 불특정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설명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M&A 관련 용어가 모두 경영권 획득과 연결되므로 ②와 ④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단 한 주의 주식도 소유하지 않고'와 '의결권 위임자 확보'라는 표현에 있다. 지분을 사들이면 take over bid이고, 표를 위임받아 싸우면 proxy fight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 지분 취득, 공개매수, 차입매수처럼 주식을 실제로 사는 표현이 있으면 TOB나 LBO를 먼저 본다. 반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표 대결이 나오면 proxy fight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Proxy fight는 주식 매수전이 아니라 위임장 표 대결이다.

NoteBase

문 8. 환율의 구매력 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PP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율의 단기적 변동과 결정에 관한 이론이다.

② 절대적 PPP는 국가 간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③ 상대적 PPP에서 환율변동률은 양국의 물가변동률 차이와 같다.

④ 무역장벽이 존재하고 수송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절대적 PPP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구매력평가설이 환율의 단기 변동이 아니라 장기 균형수준을 설명한다는 점과 절대적 PPP, 상대적 PPP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대적 PPP는 국가 간 동일 상품바구니의 가격수준이 환율로 환산하면 같아진다는 이론이다.
상대적 PPP는 양국의 물가변동률 차이가 환율변동률로 반영된다는 이론이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의 장기적 균형수준을 설명하는 이론이지 단기적 환율 변동의 직접 결정이론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단기적 변동과 결정'이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을 물가와 연결해 장기적으로 어떤 수준에 수렴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올바르게는 '환율의 장기적 균형수준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2번: O. 절대적 PPP는 국가 간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보고, 동일한 상품은 환율로 환산하면 같은 가격이 된다는 전제를 둔다.
3번: O. 상대적 PPP는 양국의 물가변동률 차이가 환율변동률로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환율변동률이 양국의 물가변동률 차이와 같다는 설명은 맞다.
4번: O. 무역장벽과 운송비 차이가 있으면 동일 상품의 국제 가격이 완전히 일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절대적 PPP는 현실에서 그대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구매력평가설을 환율의 일반적 결정이론으로만 외우면 1번에 끌리기 쉽다. 이 이론의 핵심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라는 점이고, 절대적 PPP는 가격수준, 상대적 PPP는 물가변동률 차이라는 구분이 함께 잡혀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PPP가 나오면 먼저 절대적 PPP와 상대적 PPP를 나눈다. 절대적 PPP는 동일 상품의 가격수준 일치, 상대적 PPP는 물가변동률 차이와 환율변동률의 대응으로 판단한다. 그다음 PPP는 단기 환율이 아니라 장기 균형을 설명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절대적 PPP는 가격수준, 상대적 PPP는 물가상승률 차이, PPP 전체는 장기 환율 설명이다.

NoteBase

문 9. 로빈슨(R. D. Robinson)은 기업국제화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기업 명칭을 부여하였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national firm
② international firm
③ transnational firm
④ super leading firm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Robinson의 기업국제화 5단계 명칭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national firm은 본사 모기업 중심으로 해외활동이 제한된 국가기업이다.
international firm은 본사 중심 경영 아래 현지 생산·판매까지 수행하는 국제기업이다.
multinational firm은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동등하게 보면서 국경을 넘어 자원을 배분하는 다국적기업이다.
transnational firm은 소유와 경영이 여러 국적에 걸쳐 이루어져 국적 편향이 약해진 초국적기업이다.
supernational firm은 법적으로도 탈국적화되어 국제기구 차원의 등록·통제·과세를 상정하는 초국가기업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national firm은 Robinson이 제시한 국제화 초기 단계의 명칭이다. 국내 본사 중심으로 움직이며 해외활동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2번 O: international firm도 Robinson의 단계에 포함된다. 본사 중심 경영은 유지하지만 해외 현지 생산·판매까지 수행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national firm보다 국제화가 진전된 형태이다.
3번 O: transnational firm 역시 포함된다. 여러 국적의 인력과 자본이 결합되어 의사결정의 국적 편향이 약해진 기업 형태를 가리킨다.
4번 X: 틀린 부분은 "super leading firm"이라는 명칭이다. Robinson의 5단계 마지막 명칭은 super leading firm이 아니라 초국가기업인 supernational firm이다.

오답 포인트

4번은 leading이라는 일반 영어 표현을 끼워 넣어 그럴듯하게 만든 함정이다. Robinson의 단계는 비슷한 어감보다 정식 용어의 철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풀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업국제화 단계 문제는 각 단계의 정식 명칭을 먼저 대조한 뒤, 없는 용어가 섞였는지를 본다. 특히 multinational, transnational, supernational처럼 접두어만 바뀌는 용어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Robinson 5단계는 national → international → multinational → transnational → supernational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10. 포터(M. E. Porter)의 가치사슬(Value Chain) 모형에서 기업이 행하는 전반적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활동(supporting activity)만을 모두 고르면?

ㄱ. 판매
ㄴ. 법무팀의 법무 서비스
ㄷ. 마케팅 강화를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ㄹ.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1차 활동과 지원 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1차 활동은 제품의 생산·판매·유통·서비스처럼 고객에게 가치를 직접 만들고 전달하는 활동이다.
지원 활동은 기업 전체의 운영을 떠받치는 간접 활동으로, 기업 하부구조, 인적자원관리, 기술 개발, 조달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ㄴ 법무팀의 법무 서비스는 기업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지원 활동이지만, ㄱ 판매는 고객에게 가치를 직접 전달하는 1차 활동이다. 틀린 표현은 '판매를 지원 활동에 포함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지원 활동만 고르면 ㄴ, ㄹ이다.'
2번: X. ㄱ 판매와 ㄷ 해외 전시회 참가는 모두 시장과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판매·마케팅 활동이므로 1차 활동이다. 틀린 표현은 '마케팅 강화를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 활동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해외 전시회 참가는 마케팅·판매 관련 1차 활동이다.'
3번: X. ㄴ 법무 서비스는 지원 활동이 맞지만, ㄷ 해외 전시회 참가는 마케팅·판매 활동이므로 지원 활동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ㄷ을 지원 활동에 포함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ㄷ 대신 ㄹ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이 들어가야 한다.'
4번: O. ㄴ 법무팀의 법무 서비스는 기업 하부구조에 속하는 지원 활동이고, ㄹ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은 기술 개발 활동이므로 지원 활동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판매, 전시회 참가처럼 눈에 바로 보이는 활동을 모두 지원 활동으로 착각하면 틀린다. 가치사슬에서는 고객에게 직접 닿는 판매·마케팅은 1차 활동이고, 그 뒤에서 조직과 기술을 떠받치는 법무·기술 개발이 지원 활동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당 활동이 고객가치의 생산·이동·판매·서비스에 직접 붙는지 먼저 본다. 직접 붙으면 1차 활동이고, 조직 운영이나 기술·인력·조달처럼 뒤에서 받치는 기능이면 지원 활동이다.

암기 포인트

팔고 움직이고 서비스하면 1차 활동이고, 법무·인사·기술·조달로 받치면 지원 활동이다.

NoteBase

문 11. 중재(Arbi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에 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②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비밀이 외부에 누설될 염려가 없다.

③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단심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소(上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중재의 법적 성질과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중재가 소송보다 신속한 비공개 분쟁해결절차라는 점과,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상소가 아니라 제한된 취소의 소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중재 = 당사자 합의에 따라 법원이 아니라 중재인이 분쟁을 최종 판단하는 제도이다.
중재판정 = 중재절차의 결론으로 내려지는 판단이며, 당사자 사이에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본안에 대해 상소로 다시 다투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정 내용을 다시 심사하는 상소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에 따른 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
중재법상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중재는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단심제로 종료되므로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② O
- 중재는 공개재판이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영업비밀이나 거래정보가 외부에 드러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③ O
-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 분쟁을 다시 본안으로 다투기 어렵다.

④ X
- 중재는 단심제가 아니어서 상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판정 자체에 대해 항소·상고처럼 상소하는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단심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상소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의 소로 다툴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표현을 곧바로 3심 소송구조와 연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그 불복 방식은 상소가 아니라 제한적인 취소의 소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재 문항은 먼저 단심제인지, 비공개인지, 판정의 효력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불복 수단이 나오면 상소인지 취소의 소인지 구분하는 순간 정답이 갈린다.

암기 포인트

중재 = 비공개·신속·단심제, 판정 불복은 상소가 아니라 취소의 소이다.

NoteBase

문 12. 동아시아에서 북미 서안까지 해상운송된 후, 북미 서안에서 북미 동안 또는 대서양 걸프만까지 육상운송되는 국제복합운송 경로로 옳은 것은?

① Trans Siberian Railroad
② Trans China Railroad
③ Mini Land Bridge
④ Trans Asian Railway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북미 경유 국제복합운송에서 Mini Land Bridge와 대륙횡단 철도망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Mini Land Bridge는 동아시아에서 북미 서안까지는 해상으로 운송하고, 그 뒤 북미 서안에서 북미 동안 또는 걸프만까지는 철도 등 육상으로 연결하는 국제복합운송 경로이다.
Trans Siberian Railroad는 러시아를 동서로 잇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이다.
Trans China Railroad는 중국 대륙을 활용하는 철도 운송축이다.
Trans Asian Railway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북미 서안에서 북미 동안 또는 걸프만까지 육상운송되는 경로'를 Trans Siberian Railroad로 보는 점이다. Trans Siberian Railroad는 러시아를 횡단하는 철도축이므로 북미 대륙 내 서안-동안 연결 경로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철도에 해당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해당 북미 경유 복합운송을 Trans China Railroad로 보는 점이다. Trans China Railroad는 중국 철도축을 활용하는 개념이므로 북미 서안 도착 후 북미 동안이나 걸프만까지 넘기는 경로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중국 대륙을 지나는 철도 운송 경로를 가리킨다.
3번 O: Mini Land Bridge는 동아시아에서 북미 서안까지 해상운송한 뒤, 북미 서안에서 북미 동안 또는 걸프만까지 육상운송하는 방식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일치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북미 대륙 내 서안-동안 연결 경로를 Trans Asian Railway로 보는 점이다. Trans Asian Railway는 아시아 역내 국가들을 잇는 철도망이므로 북미 경유 국제복합운송 명칭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아시아 대륙 내 국제철도 네트워크를 뜻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문제의 함정은 'Railroad'나 'Railway'라는 철도 이름에만 끌려 대륙횡단 철도망을 고르는 데 있다. 이 문항은 철도 노선 자체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북미 서안까지 해상으로 온 뒤 북미 내륙을 육상으로 넘기는 복합운송 방식의 명칭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합운송 문제는 해상 구간이 끝나는 지점과 이후 육상 구간이 이어지는 대륙을 먼저 본다. 북미 서안 도착 후 북미 동안이나 걸프만까지 육상으로 연결되면 Mini Land Bridge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Mini Land Bridge는 아시아-북미 서안-북미 동안·걸프만을 해상과 북미 내륙 육상운송으로 잇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13. 국제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센싱(licensing)은 계약을 통해 현지국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이러한 경영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② 계약생산(contract manufacturing)은 한 기업이 외국의 다른 기업에게 생산 및 제조기술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특정제품의 생산을 주문하고, 그 주문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 현지시장이나 제3국 시장에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③ 프랜차이징(franchising)은 상표나 상호의 사용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그 사용권을 허락하는 동시에 원료 및 관리시스템까지 일괄 제공하여 양자가 직·간접적으로 다같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④ 턴키운영(turnkey operation)은 생산설비를 건설하고 가동하여 생산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에서 계약된 모든 책임이 소유주에게 이전되는 방식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계약 유형별로 무엇을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계약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라이센싱은 특허권, 상표권, 기술, 노하우 등의 사용권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다.
계약생산은 외국 기업이 현지 생산업자에게 생산을 맡기고 완성품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징은 상표, 상호 사용권과 함께 운영방식, 원료조달, 관리시스템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턴키운영은 설비를 건설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일괄도급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현지국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고"와 "경영서비스의 제공"이다. 이는 라이센싱이 아니라 관리계약에 가까운 설명이다. 라이센싱은 특허권, 상표권, 기술, 노하우 등의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다.
2번: O. 계약생산은 한 기업이 외국의 다른 기업에게 제품 생산을 맡기고 주문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 현지시장이나 제3국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맞다.
3번: O. 프랜차이징은 상표나 상호의 사용권뿐 아니라 원료, 운영 매뉴얼, 관리시스템 등 사업운영 체계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타당하다.
4번: O. 턴키운영은 플랜트나 생산설비를 건설하여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인도하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라이센싱과 프랜차이징은 모두 권리 사용을 허락한다는 점 때문에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라이센싱은 무형자산의 사용허락이 중심이고, 프랜차이징은 운영시스템까지 묶어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다. 1번은 라이센싱에 관리계약의 성격을 섞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계약 유형 문제는 무엇이 거래의 핵심인지부터 본다. 권리 사용허락이면 라이센싱, 외부업체에 생산을 맡기면 계약생산, 상표와 운영패키지를 함께 주면 프랜차이징, 가동 가능한 설비 자체를 넘기면 턴키운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라이센싱은 권리 사용허락, 계약생산은 위탁생산, 프랜차이징은 상표와 운영패키지, 턴키운영은 가동 가능한 설비 인도이다.

NoteBase

문 14.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 간 문화적 차이의 영향을 설명하는 홉스테드(G. Hofstede)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거리(power distance)가 큰 문화에서는 권력과 부의 불균등성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성향이 나타난다.

② 불확실성의 회피 성향(uncertainty avoidance)이 낮은 문화에서는 변화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 나타난다.

③ 여성주의적 성향(feminity)이 강한 문화에서는 물질적 성공보다는 상호의존적 관계와 삶의 질이 중시된다.

④ 개인주의적 성향(individualism)이 강한 문화에서는 개인들 간의 연계가 느슨하며 개인의 성취와 자유가 높게 평가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모형에서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여성성, 개인주의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권력거리는 사회가 권력과 지위의 불평등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가를 뜻한다.
불확실성 회피는 모호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는가를 뜻한다.
여성주의적 성향은 경쟁과 성취보다 관계, 배려,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문화 성향을 뜻한다.
개인주의적 성향은 집단보다 개인의 자율, 성취, 자유를 더 중시하는 문화 성향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권력거리가 큰 문화는 권력과 부의 불균등을 줄이려는 성향보다 위계질서와 권위의 차이를 비교적 당연하게 수용하는 성향이 강하다. 틀린 부분은 '불균등성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는'이다. 올바르게는 '권력과 지위의 격차를 비교적 수용하고 권위적 질서를 인정하는'에 가깝다.
② O: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낮은 문화는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 모호성을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③ O: 여성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는 물질적 성공, 경쟁, 성과보다 인간관계, 상호의존, 배려, 삶의 질을 더 중시한다. 선지의 설명이 해당 차원의 특징과 맞는다.
④ O: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는 개인 간 결속이 느슨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적 성취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따라서 개인의 성취와 자유가 높게 평가된다는 설명은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권력거리와 평등지향을 반대로 연결하면 오답이 된다. ①은 '권력거리가 크다'는 말을 '격차를 줄이려 한다'로 뒤집어 놓은 함정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홉스테드 문항은 각 차원이 무엇을 더 당연하게 여기는지 먼저 대응시키면 빠르게 판단된다. 권력거리는 위계 수용 정도, 불확실성 회피는 변화 불안 정도, 여성성은 관계와 삶의 질 중시, 개인주의는 개인 자율 중시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권력거리 크다=위계 수용, 불확실성 회피 낮다=변화 수용, 여성성=관계 중시, 개인주의=자율 중시이다.

NoteBase

문 15. 예기치 않은 환율 변동으로, 기업 미래현금흐름의 순 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가 변화하는 환노출은?

① Translation Exposure

② Economic Exposure

③ Transaction Exposure

④ Accounting Exposure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환노출의 유형 가운데 기업의 미래현금흐름과 기업가치 자체를 바꾸는 경제적 노출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경제적 노출은 예기치 않은 환율 변동이 기업의 미래 매출·비용·현금흐름을 바꾸어 순현재가치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노출이다.
거래적 노출은 이미 계약된 외화표시 채권·채무나 예정 거래의 결제 전까지 발생하는 환위험이다.
환산노출과 회계적 노출은 외화 재무제표를 자국통화로 환산할 때 장부상 수치가 변하는 노출을 말하며, 실질 현금흐름 변화와는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1번 X: Translation Exposure는 환산노출이다. 외화 재무제표를 본국 통화로 환산할 때 회계상 자산·부채·이익 수치가 변하는 위험을 뜻한다. 틀린 표현은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장부상 환산효과를 묻는 경우에 해당한다.
2번 O: Economic Exposure는 환율 변동이 기업의 장래 영업현금흐름과 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기업가치와 순현재가치를 바꾸는 노출이다. 발문의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 변화와 정확히 대응한다.
3번 X: Transaction Exposure는 수출대금, 수입대금, 외화표시 채권·채무처럼 이미 계약된 개별 거래의 결제금액이 환율 때문에 달라지는 위험이다. 틀린 표현은 기업 전체의 미래현금흐름 순현재가치 변화를 가리킨다고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확정된 외화거래의 결제 전 환위험을 뜻한다.
4번 X: Accounting Exposure는 보통 환산노출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회계적 노출이다. 재무제표 환산에 따른 회계상 변동을 말할 뿐 기업의 실질 미래현금흐름과 순현재가치 변화를 직접 묻는 개념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재무제표의 환산효과를 뜻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거래적 노출은 외화거래가 있으므로 현금흐름과 관련 있다는 점 때문에 경제적 노출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거래적 노출은 이미 확정된 개별 거래의 결제위험이고, 경제적 노출은 환율 변화가 기업 전체의 장래 수익성과 가치에 미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또한 환산노출과 회계적 노출은 사실상 같은 축의 개념이라는 점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 미래현금흐름, 순현재가치, 기업가치, 경쟁력 변화가 나오면 경제적 노출을 우선 떠올린다. 이미 계약된 외화채권·채무의 결제금액 변동이면 거래적 노출이고, 재무제표 환산이나 장부상 이익 변동이면 환산노출 또는 회계적 노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업가치까지 흔들면 경제적 노출, 계약된 외화거래면 거래적 노출, 재무제표 환산이면 환산·회계적 노출이다.

NoteBase

문 16.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중 품질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FAQ 조건은 해당 계절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을 표준으로 한다.

② GMQ 조건은 정확한 견본 또는 표준품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며, 인도하는 물품의 품질이 시장에서 판매적격해야 한다.

③ 선적품질조건은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선적시점에 약정된 품질임이 증명되면, 그 후의 변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이다.

④ 양륙품질조건은 운송도중에 생기는 물품의 변질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품질조건 중 FAQ, GMQ, 선적품질조건, 양륙품질조건의 기준 시점과 위험부담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FAQ는 해당 계절에 출하되는 물품의 공정평균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이다.
GMQ는 정확한 견본이나 표준품 사용이 곤란할 때 쓰는 조건으로, 인도품이 일반적으로 판매적격한 품질이면 된다.
선적품질조건은 선적 시점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시점에 계약품질에 맞았음이 증명되면 이후 변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 책임이 아니다.
양륙품질조건은 양륙 또는 도착 시점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운송 중 변질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성격이 강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FAQ는 Fair Average Quality로, 그 계절 출하품의 평균적이고 공정한 중등품질을 표준으로 삼는 조건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O. GMQ는 Good Merchantable Quality로, 정확한 견본품이나 표준품 제시가 어려울 때 사용하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품질이면 되므로 맞는 설명이다.
③ O. 선적품질조건은 품질판정 기준이 선적 시점에 있으므로, 선적 당시 약정 품질이었음이 증명되면 그 뒤 운송 중 변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라는 표현이다. 양륙품질조건은 운송인의 책임을 정하는 조건이 아니라 매매계약상 양륙 시점 품질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올바르게는 '양륙품질조건은 운송 도중의 변질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여, 양륙 시점의 품질에 대해 책임지는 조건이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과 ④를 모두 운송 중 변질과 연결해서 읽으면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구별 기준은 누가 운송행위를 했는지가 아니라 품질 판정 시점이 선적 시점인지 양륙 시점인지이다. ④는 그 기준을 운송인 책임 문제로 바꿔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품질조건 문제는 먼저 품질을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는지부터 본다. 선적 시점 기준이면 이후 변질 위험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측으로 넘어가고, 양륙 시점 기준이면 그 도착 품질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선적품질조건은 선적 시점 책임, 양륙품질조건은 도착 시점 책임이라는 대비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7. 항공화물요율 중 특정구간에 동일품목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운송되는 품목이거나, 육상이나 해상운송과의 경쟁성을 감안하여 항공운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해 설정되는 요율은?

①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② Specific Commodity Rate

③ Bulk Unitization Charge

④ General Cargo Rate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항공화물요율 중 특정 품목에 대해 반복 운송성과 타 운송수단과의 경쟁성을 반영해 설정하는 특수요율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pecific Commodity Rate는 특정 구간에서 특정 품목이 계속 운송되거나 육상·해상운송과 경쟁해야 할 때 설정하는 품목별 특수요율이다.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는 품목의 성질과 취급 특성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적용하는 분류요율이다.
Bulk Unitization Charge는 화물을 단위화하거나 대량 단위로 묶어 취급할 때 적용되는 운임 개념이다.
General Cargo Rate는 별도의 특수요율이 없는 일반 화물에 적용하는 기본요율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이다. 이는 품목을 등급별로 분류해 일반요율을 조정하는 개념이지, 특정 구간에서 반복 운송되거나 경쟁 운송수단을 고려해 설정하는 특수품목요율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Specific Commodity Rate"이다.
② O: Specific Commodity Rate는 특정 품목에 대해 특정 구간에서 설정되는 특수운임으로, 지속적 반송성과 육상·해상운송과의 경쟁을 반영한다. 발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Bulk Unitization Charge"이다. 이는 단위화된 화물이나 대량 집합화물의 취급과 관련된 운임 개념이지, 특정 품목의 반복 수송과 경쟁성 때문에 설정되는 품목별 특수요율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Specific Commodity Rate"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General Cargo Rate"이다. 이는 일반 화물에 적용하는 기본요율로서 특정 품목에 대한 예외적 우대요율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Specific Commodity Rate"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와 Specific Commodity Rate를 모두 품목 관련 운임으로 보고 혼동하기 쉽다. 전자는 품목의 등급 분류가 기준이고, 후자는 특정 품목의 반복 운송과 경쟁 운송수단 존재가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 특정 품목, 특정 구간, 반복 운송, 타 운송수단과의 경쟁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품목별 특수요율인 Specific Commodity Rate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품목의 등급 분류가 핵심이면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이고, 일반 화물 전반이면 General Cargo Rate이다.

암기 포인트

Specific는 특정 품목의 특수요율, Classification은 품목 등급 분류, General은 일반기본요율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8.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 제3조 내용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 means the party in whose favour a credit is issued.
ㄴ. The expression '(㉡)' or similar will be interpreted as a stipulation that an event is to occur during a period of five calendar days before until five calendar days after the specified date, both start and end dates included.
ㄷ. The words '(㉢)' and '(㉣)' when used to determine a maturity date exclude the date mentioned.

① ㉠: Applicant, ㉡: on or about, ㉢: from, ㉣: till
② ㉠: Applicant, ㉡: on or at, ㉢: till, ㉣: from
③ ㉠: Beneficiary, ㉡: on or about, ㉢: from, ㉣: after
④ ㉠: Beneficiary, ㉡: on or at, ㉢: after, ㉣: from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UCP 600 제2조의 용어 정의와 제3조의 날짜 해석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beneficiary와 applicant를 구별하고, on or about의 의미와 maturity date에서의 from·after 해석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Beneficiary는 신용장이 그 앞으로 개설된 수익자이다.
Applicant는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의뢰인이다.
on or about은 지정일 전후 각 5일,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다.
만기일을 정할 때 from과 after는 기준일 자체를 제외하는 표현이다.

핵심 구분

UCP 600 제2조에서 beneficiary는 'credit is issued in whose favour'의 주체이고 applicant는 'credit is issued on whose request'의 주체이다.
UCP 600 제3조에서 on or about은 지정일 전후 5일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또한 shipment period에서는 to, until, till, from, between이 날짜를 포함하지만, maturity date에서는 from과 after가 날짜를 제외한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이 틀렸다. Applicant는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자이므로 'credit is issued in whose favour'에 해당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 = Applicant
- 올바른 표현: ㉠ = Beneficiary이다.

② X
- ㉠과 ㉡이 틀렸다. Applicant는 개설의뢰인이고, ㉡의 해석문구는 on or at이 아니라 on or about이다.
- 틀린 표현: ㉠ = Applicant, ㉡ = on or at
- 올바른 표현: ㉠ = Beneficiary, ㉡ = on or about이다.

③ O
- ㉠은 Beneficiary이고, ㉡은 on or about이며, 만기일 산정에서 기준일을 제외하는 표현은 from과 after이므로 모두 맞다.

④ X
- ㉡, ㉢, ㉣이 틀렸다. on or at은 해당 해석문구가 아니고, 만기일 기준의 제외 표현도 after·from의 위치가 바뀌었다.
- 틀린 표현: ㉡ = on or at, ㉢ = after, ㉣ = from
- 올바른 표현: ㉡ = on or about, ㉢ = from, ㉣ = after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beneficiary와 applicant의 주체를 뒤바꾸거나, shipment period 규정과 maturity date 규정을 섞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till은 선적기간에서는 포함 규정에 들어가지만, 만기일 제외 규정의 키워드는 from과 after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용장 규칙 문구 문제는 먼저 제2조 정의 조항인지 제3조 해석 조항인지 나누어 본다. 그다음 주체 정의는 in whose favour와 on whose request를 대비하고, 날짜 문구는 on or about과 maturity date의 from·after를 분리해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Beneficiary는 수익자, Applicant는 개설의뢰인, on or about은 전후 5일 포함, maturity date의 from·after는 기준일 제외이다.

NoteBase

문 19. 신 협회적하약관 ICC(A)(2009) 제11조, 제17조의 내용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1.1 In order to recover under this insurance the Assured must have an (㉠)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at the time of the loss.
11.2 Subject to Clause 11.1 above, the Assured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for insured los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insurance, notwithstanding that the loss occurred before the contract of insurance was concluded, unless the (㉡) were aware of the loss and the Insurers were not.
17. Measures taken by the Assured or the Insurers with the object of saving, protecting or recovering the subject-matter insured shall not be considered as a waiver or acceptance of (㉢) or otherwise prejudice the rights of either party.

① ㉠: insurable interest, ㉡: Assured, ㉢: abandonment
② ㉠: insurable interest, ㉡: Insurers, ㉢: abandonment
③ ㉠: insurable value, ㉡: Insurers, ㉢: subrogation
④ ㉠: insurable value, ㉡: Assured, ㉢: subrogation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CC(A) 제11조와 제17조의 핵심 용어인 피보험이익, 손해 인지 주체, 위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insurable interest: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나면 피보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이해관계이다.
insurable value: 보험목적물의 가치로서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개념이다.
abandonment: 위부로서 피보험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전손 기준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개념이다.
subrogation: 대위로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개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제11.1조는 손해 발생 시점에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ㄱ은 insurable interest가 맞다. 제11.2조는 손해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생했더라도 피보험자만 그 손해를 알고 보험자는 몰랐던 경우에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ㄴ은 Assured가 맞다. 제17조는 구조·보전·회수 조치가 위부의 포기나 수락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ㄷ은 abandonment가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ㄴ의 Insurers이다. 제11.2조에서 손해를 알고 있었던 주체는 보험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이므로 올바르게는 insurable interest / Assured / abandonment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ㄱ의 insurable value, ㄴ의 Insurers, ㄷ의 subrogation이다. 제11.1조는 보험가액이 아니라 피보험이익을 요구하고, 제11.2조의 인지 주체는 Assured이며, 제17조의 비포기 대상은 대위가 아니라 위부이므로 올바르게는 insurable interest / Assured / abandonment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ㄱ의 insurable value와 ㄷ의 subrogation이다. 제11.1조는 보험가액이 아니라 피보험이익을 요구하고, 제17조는 대위가 아니라 위부의 포기 또는 수락 여부를 다루므로 올바르게는 insurable interest / Assured / abandonment이다.

오답 포인트

insurable interest와 insurable value를 같은 뜻으로 섞거나,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던 주체를 보험자로 바꾸면 틀린다. 또한 구조·보전 조치와 연결되는 조항은 subrogation이 아니라 abandonment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약관 빈칸 문제는 보상 요건, 손해 인지 주체, 권리 처리 개념을 먼저 나누어 읽으면 된다. 손해 시점의 이해관계는 insurable interest, 사전 손해 인지 여부는 Assured, 구조행위의 비포기 효과는 abandonment로 연결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recover 요건은 insurable interest, 사전 손해 인지 주체는 Assured, 구조행위의 비포기 대상은 abandonment이다.

NoteBase

문 20. Incoterms® 2010 각 조건의 위험 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FCA: 매도인이 물품을 합의된 기일이나 기간 내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할 때 위험이 이전된다.

② CFR: 매도인이 물품을 합의된 기일이나 기간 내 지정선적항의 본선에 적재한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된다.

③ DAT: 매도인이 물품을 합의된 기일이나 기간 내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둘 때 위험이 이전된다.

④ DDP: 매도인이 물품을 합의된 기일이나 기간 내 수입국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둘 때 위험이 이전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ncoterms 2010에서 FCA, CFR, DAT, DDP의 위험이전 시점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FCA는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다.
CFR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다.
DAT는 지정목적지의 터미널에서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놓이면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다.
DDP는 수입국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이 도착운송수단 위에 있는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놓이면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FCA에서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이면 매도인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해 주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된다. 선지의 설명은 FCA의 위험이전 시점을 맞게 적었다.
2번 O: CFR은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항 본선 적재 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또한 이미 그렇게 선적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한 경우도 같은 구조로 본다.
3번 O: DAT는 지정터미널에서 양하까지가 매도인의 책임범위이므로, 도착운송수단에서 내려진 뒤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놓이는 때 위험이 이전된다. 선지 내용이 정확하다.
4번 X: 틀린 부분은 "양하된 상태"이다. DDP는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에 실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면 위험이 이전된다. 실제로는 양하 전 상태에서 위험이 이전되므로, 양하 후 이전된다고 한 선지는 틀리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DAT와 DDP를 둘 다 목적지 인도조건으로만 외우면 양하 전후가 뒤바뀐다. DAT는 터미널에서 양하된 뒤이고, DDP는 지정목적지에서 양하 전이라는 차이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ncoterms 문제는 비용부담이 아니라 위험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를 먼저 본다. 그다음 선적항 본선 적재인지, 목적지 터미널 양하 후인지, 목적지에서 양하 전 임의처분 상태인지를 조건별로 대조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CFR은 본선 적재 시, DAT는 양하 후, DDP는 양하 전 목적지 인도이다.

NoteBase